

국민연금공단 정읍 연수원 건립 속도

정읍시·연금공단 업무협약

413억원 투입 2025년 준공

내장산문화광장에 1만㎡ 규모

정읍시가 유치한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건립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15일 유진섭 시장과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과 연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989년 9월 설립돼 109개의 지사와 72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금 적립액은 무려 834조원에 이르는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총 사업비 413억원이 투입되는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은 내장산문화광장 일원 4만6316㎡의 부지에 연면적 1만㎡ 규모로 건립된다.

연수원이 완공되면 공단 본사와 109개 지사에서 1일 2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이용할 예정이다.

시는 7200여 명의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가족이 연수원을 이용하면서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5일 정읍시청에서 유진섭 시장과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과 연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정읍시 제공>

또 내장산문화광장과 용산호 일대 관광시설과 연계해 정읍 관광산업 발전과 유발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공유재산의 매각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등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이 전국

최고의 힐링과 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을 비롯해 JB금융그룹 연수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원 등 연수시설을 연이어 유치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연수원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대한민국 판소리 성지' 자리 굳힌다

동리정사 재현사업·운영 방안

판소리 중흥 용역 중간 보고회

'대한민국 판소리 성지' 고창군이 추진하는 동리정사 재현을 통한 판소리 중흥 프로젝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동리정사 운영 및 판소리 중흥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성덕 교수팀)'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조기환 고창문화원장, 박종은 한국예총 고창지회장과 이만우 동리문화사업회 이사장, 김옥진 한국판소리보존회 고창군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판소리의 효시' 동리 신재효 선생이 조선후기 판소리를 개작·정리했던 역사적 현장을 재현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고창군이 대한민국 판소리 성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간보고에선 성공적인 동리정사 운영, 판소리

계승기반 구축, 판소리 대중화 선도를 위한 운영 단체와 동리정사 공간 운영안을 제시했다.

또 동리대상·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고창 동리창극원 설립, 동리 신재효 판소리 경연대회, 무형문화재 초빙 소리 아카데미, 판소리 '산공부' 지원, 동리레지던스 지원사업, 신재효 판소리 사설 작창 공모전 등의 판소리 계승기반을 구축하고 판소리 대중화 선도를 위한 판소리 동리 스테이 등의 세부 프로그램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동리정사 재현사업을 통해 동리의 꿈을 실천하고 판소리 계승기반 구축을 통해 판소리 대중화 선도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동리 신재효 연구와 판소리 중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자랑스러운 예방 고창의 정신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읍에 건립되고 있는 동리정사는 판소리 중흥을 이끌었던 곳이자, 당시 시인묵객들과 판소리 창자, 판소리 지방생들이 몰려들었던 이름난 정원으로서 조선후기 서민문학이 발달했던 시절의 문화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장류산업 메카 순창군 먹방여행 프로그램 운영

'장류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순창군이 지역 산업의 특성을 살린 '먹방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은 순창군 풍경버스 담당자인 프랑스인 가이드 레아모로의 인문학투어에 이은 2번째 기획행사로 '푸드투어'를 마련해 오는 26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에서 관광객들이 가이드와 함께 맛집을 찾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해 순창의 자랑인 고추장을 이용한 매운맛 음식을 주제로 잡고 레아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지역을 투어하는 방식으로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레아와 함께 순창시장에서 불고기를 만들 재료 구입한 뒤 풍경버스를 타고 순창 메타세쿼이아길 등을 둘러보고 순창읍에서의 버스킹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이후 고추장불고기와 얼얼찌개를 개발한 '순창예찬'의 이준구 셰프와 함께 직접 고추장을 이용한 불고기를 만들고 고추장꾸기 등을 개발한 '미호베이커리' 이영훈 파티셰와 함께 순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제빵도 만들어 본다.



순창군 풍경버스 담당자인 프랑스인 가이드 레아모로의 푸드투어. 고추장불고기와 얼얼찌개를 개발한 '순창예찬'의 이준구 셰프와 함께한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20명 선착순 모집이다. 문의는 순창군 미생물산업사업소(063-650-5477)로 하면 된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남원시, 토종 미꾸리 대량양식 기술 특허 획득

산소장치 필요 없는 무환수 방식

양식어가 소득향상 큰 도움 기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토종 미꾸리 대량양식 기술의 특허를 취득했다.

남원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인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 공급과 관련한 기술특허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최종등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간 미꾸리 양식은 대부분 노지나 눈을 이용한 양식으로 이루어져 천적피해, 농약피해 등으로 생산성이 낮았다.

민간과 연구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다른 어류에 비해 예민한 미꾸리의 특수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왔다.

시는 지역대표 먹거리 추어탕의 대중화와 고급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연구원이 미꾸리 치어를 확인하고 있다.

화를 위해 2007년부터 인공부와 치어를 생산, 공급하는 등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을 위해 노력해왔고 2016년부터는 육상수조 양식방식을 도입해 기

술연구에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특허 취득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옛기름 전분분해효소를 이용한 미꾸리류 무환수 양식방법'은 사육수를 교환하지 않고 양식하는 무환수 양식기술(BFT)을 미꾸리류의 특성에 맞춰 개발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고도의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미꾸리를 양식할 수 있고 고가의 산소발생장치도 필요치 않아 미꾸리 양식어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특허등록은 남원시가 추어산업의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미꾸리에 특화된 고효율 양식기술 개발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시 청년주방 업체 3곳 입점 본격 운영

익산시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청년주방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주방은 롯데마트 내에 마련됐으며 외식업체 3곳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입점한 업체는 예술곡수, 전주소바, 프레시헌디 등 3곳이다.

시와 롯데마트는 지난 2월 지역 청년들의 창업

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푸드코트 청년외식창업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시는 그동안 입점 준비를 하면서 전문 멘토링 교육과 홍보·마케팅, 메뉴 개발, 가격 책정, 세무,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개점 후에도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비 최대 2000만원과 임대료 매월 50만원(1년)을 지원하며 롯데마트는 보증금, 관리비, 카드수수료를 면제한다.

시는 청년주방 입주 업체 2곳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창업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청년주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군산시 월명로 구간 자전거도로 2.3km 정비

군산시는 수송사거리-남북로사거리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지역 안전개선사업' 공모에 해당 구간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선정돼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월명로 구간은 보도 폭이 10m로 유동 인구가 많으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안전사고 위험이 컸던 구간이다.

6억원을 투입해 자전거도로 2.3km와 자전거

횡단도 3곳을 설치한다.

지난 3월 신청해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8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파관광지 자전거 안전 교육장에 지속적인 인기가 있는 BMX(Bicycle Motocross) 코스도 조성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변경을 계기로 시민이 자전거를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야.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 걱정이야.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